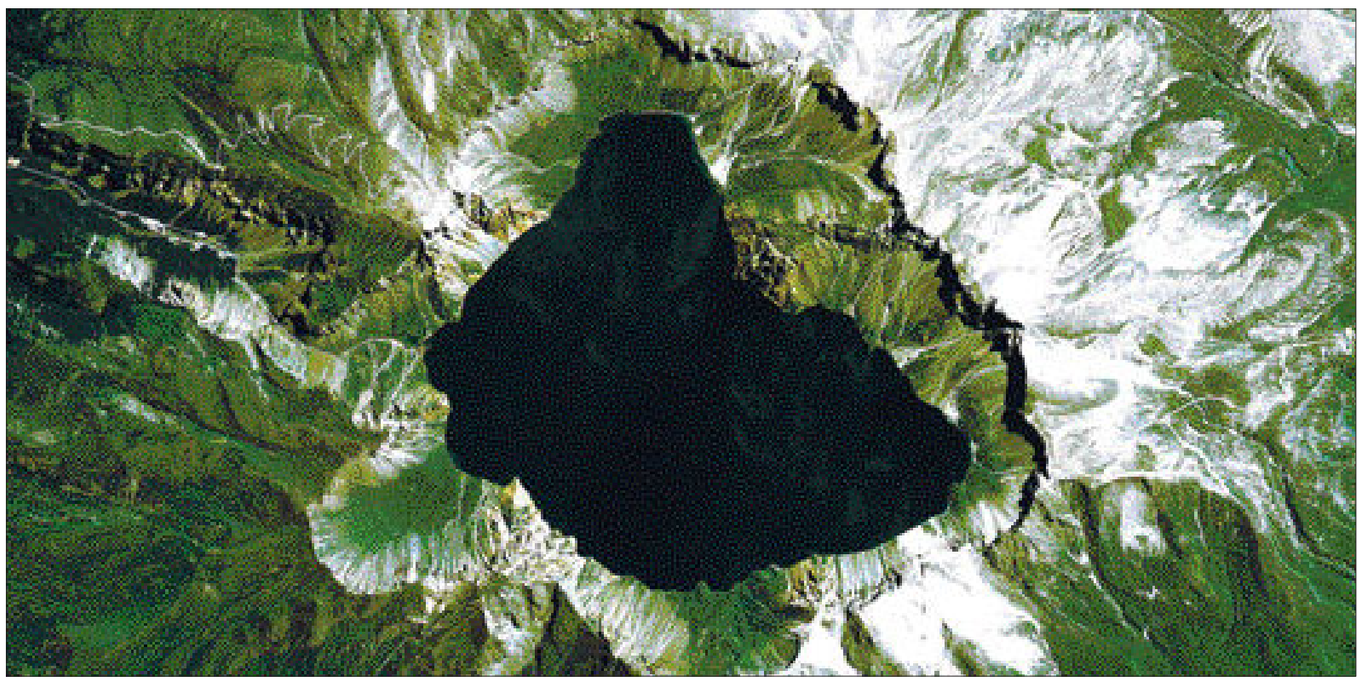
신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3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8월 30일 (음력 7월 7일) 수요일

우주에서 본 백두산 천지

아리랑2호 촬영 영상 첫 공개



지난달 28일 발사된 아리랑 2호가 지구상공 685km지점에서 자체 위성카메라로 찍은 백두산 정상 및 천지(1화소당 4m급 해상도).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9일 공개한 위성사진은 천지 주변의 식물 분포 상황과 과거 화산폭발로 굳어진 암석 지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선명하다.
▶관련기사 5면
/과학기술부 제공

"정부 책임 통감"

韓총리 '바다' 대국민사과
정동채 前장관 당직 사퇴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권 수뇌부가 29일 사행성 성인게임물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일제히 대국민사과를 했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당 비상대책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했다.

〈관련기사 4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의 확산에는제도적 허점과 악용소지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땅히 점검했어야 할 정부 정책을 점검·견제하지 못해서 비극적 사건을 만든 책임이 있는 만큼 집권여당의 당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정동채 전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뒤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지상전

제6회 광주비엔날레(9월 8일~11월 11일)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32개국 작가 127명이 참여, 89점의 작품을 전시돼 현대미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미리 감상하는 지상전을 마련한다.

中 장 후안의 '평화(peace)'

중국 출신 작가인 장 후안은 이번 비엔날레의 담론인 '아시아성'을 담아내기 위해 작품의 모티프를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범종'에서 따왔다.

비엔날레 출품작 '평화(peace)'는 퍼포먼스, 조각, 설치를 아우르는 복합형식으로 범종 몸체에 조상의 이름을 새긴 뒤 자신의 몸을 본 뜬 브론즈 조각으로 종을 친다.

이를 통해 작가의 태생적 배경과 혈연에 대한 개인의 예술적인 투쟁을 웅변한다. 타종을 통해 울려퍼지는 소리는 평화에 대한 외침을 담고 있으며 관람객들도 퍼포먼스에 참가할 수 있다.

장 후안은 전통회화적 표현의 한계와 중국 사회의 경직성에 반기를 들고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Beijing East Villiage)'를 조직, 중국 현대미술 퍼포먼스를 주도한 작가다. /윤영기기자 penfoot@
/사진=나명주기자 mjna@

광주 문화수도특별법 국회 통과

박광태 시장 "시민과 함께 환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 문화수도 조성 사업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으며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게 돼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다.

총 8장 57조 부칙 4조로 구성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문화예술진흥, 생태적 도시 문화진흥 등 도시조성사업 시행 ▲문화산업 진흥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운영 ▲조성사업 추진 기구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특별회계 설치가 원안대로 통과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길이 트였다.

지난 2005년 10월 여야 의원 157명의 공동 발의로 탄생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및 특별회계 설치 문제 등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를 표류했었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환영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수도 조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므로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도권기업 이전 강원·전북·충남 집중

광주 49·전남 20개 업체
취약지역 인센티브 줘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강원, 충남, 전북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및 행정복합도시와의 접근성 등 지역여건이 작용한 측면이 강해, 광주·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확보가 시급하다.

29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총 991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실적을 보면 광주와 전남에 각각 49개, 20개 등 69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이후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현황

지역	업체수
강원	377
전북	159
충남	153
충북	68
부산	60
대전	50
광주	49
경북	28
전남	20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강원도는 377개, 전북에는 159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에는 153개, 충북 68개 기업이 이전, 충청권에 총 221개의 기업이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업들이 강원도로 대거 이전한 것은 수도권과 근접했다는 측면에서 물류 비용 절감 및 수도권 시장 공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충남은 행정수도 건설로 추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충청권과의 접근성이란 측면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진만기자 man21@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물가36년 정보의 메카나름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 物價情報
http://www.kpi.or.kr
한국물가정보

국제 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조수미 광주공연
9월 24일(일요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 (062)220-0541

호남 최고의 명당!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분양문의 (062)521-1100